



당진 김창희의 펼친 조각 "고향마을"

최승훈 (파리 제Ⅷ대학 조형예술학 박사)

누구나 당진 김창희의 작업세계를 대할 때면 아주 편안함을 느낀다. 우선 그의 조각은 온통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택된 재료의 재질감 처리 또한 이러한 부드러움을 더욱 배가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등장하는 사람, 선, 나무들이 둥그런 형태를 지니며 일체화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의 동질한 감성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구조면에서 사람을 둘러싼 산과 나무들이 독자적 모습을 나타내기 보다 하나의 큰 곡면의 흐름에 속해 있어 조그마한 사람들을 포근히 감싸안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인물상들조차도 서있는 자세로 있기보다는 웅기종기 모여 앉아 있거나 한가로이 누워 있는 모습을 함으로써 큰 흐름을 형성하는 곡면에 흡수되고 있다.

즉 어느 하나 파격을 이루는 것은 없다. 인체를 통한 구상작업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점인 특징의 인물묘사도 없고 강조된 동작 또한 없다. 그의 「고향마을」에 등장하는 산·나무·사람들 모두가 어느 특징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김창희 조각세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지극히 관념화된 소재이다. 그는 산·나무와 사람의 구체적 모습 재현을 통한 풍경의 구축엔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러한 특수한 성격을 배제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다른 세계에 골몰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성의 모색이다.

그의 작업에서 필자가 확인하는 점은 한국민화에서 나타나는 선의 특성을 설명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한국 민화에는 선묘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지, 즉 구체적 표현 의지가 강하게 보이지 않고 오로지 대상의 윤곽을 따라 그려낸 듯한 선의 성격으로 민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그 표현된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그림 너머로 시원스레 지나가는 듯하다는 점이다. 그는 이러한 성격의 선을 구사한다. 다시 말해서 그의 곡선으로 된 형상은 구체적으로 산·나무·사람이라기 보다는 산같은, 나무같은, 사람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큰산 위에 조그맣게 나무를 엮어놓은 것이 크게 보면 또 하나의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은, 그의 선적 공간처리가 그 형태를 관객의 감성에 편히 맡겨 나뭇대로의 상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련하고도 섬세한 작가의 의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큰 곡면이라는 흐름은 척박한 세상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모두의 그리움의 대상인 고향마을의 이미지를 담고 우리의 감성을 편히 감싸준다. 여기에 조각가로서의 그의 작업은 관객의 시선을 극히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된다.

그는 넓은 면으로 이루어진 산과 같은 형태 또는 언뿔과 같은 형태, 산 속의 샘과 같은 형태 등으로 시각을 가리키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하여 우리는 그가 제시하는 공간속으로 몰입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완만한 움직임을 따라가며 넉넉한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세계는 단순히 그의 작가적 감성 면에서만 설명되어져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서 필자는 비록 짧은 스케치에 의해서라 할지라도 그의 오늘날까지의 조각여정을 살펴볼 때 보다 확연한 이해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70년대 중반에는 인체가 가질 수 있는 동작을 통하여 역동성을 추구하였으며, 그러한 인체가 갖는 힘의 조형적 구조는 자연 일상인의 모습에서 보다 무용인의 동작에서와 같은 특수한 표현 등에서 자주 찾아졌었다.

그 이후 그의 작업에서 가족으로 보이는 군집형상이 등장한다.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을 등장시켜 인간애를 보여준 작업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한국사회에서의 가족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신체비례의 오랜 실험 결과 한국인의 신체구조에 대한 확인작업도 이루어졌으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성의 정서 표출이라는 문제에 역점을 두고 연구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최근 그의 작품 속에 내재된 풍경적 요소의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보다 풍부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그의 조각세계가 모스크바에서의 초대 개인전을 통해 높이 평가된 바 있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스톤리 브룩(Stony Brook)의 한국학과를 위한 상징조각으로 선정되었듯이, 단순히 그의 감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가 한국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민족적 자긍심에 의한 한국적 특성을 표출함으로써 다양한 국제적 문화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향한 고유한 한국적 비전을 제시하는 의도적 작업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그의 구상작업이 지닌 높은 가치를 발견한다.

http://www.kcaf.or.kr/art500/kimchanghee/rev1_1.htm